

아름다운 삶이 길어올린 빛나는 글 게으른 것이 죄스럽지 않은 겨울날의 독서일기

박남정 | 자유기고가

겨우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산골 외딴집을 지켰다. 땅이 얼어붙었으니 딱히 할 일이 없고 속절없이 방에 갇힌 아이들 등쌀에 다른 일 할 짬 내기도 힘들었지만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방문만 열면 문고리가 손에 짹 짹 달라붙는 추위가, 유난히 자주 그리고 많이 내려 길을 막아버린 눈이 그런 내 게으름에 좋은 변명거리가 돼 줬다. 시장 나들이도 여의치 않아 시래기 삶아 먹고 무 지저 먹고 닭장에 가 계란 꺼내 부쳐 먹고 그렇게 겨울을 냈다.

헛방엔 벗가마 차곡차곡 쌓아 두고 김장 향아리는 두 개나 땅에 묻었다. 뒤뜰 땅굴 속에 묻어둔 배추며 무는 닭이랑 토끼와 나뉘 먹는데도 늦은 봄까지 먹고도 남을 것 같다. 두점도 넘게 깎아 말린 꽃감이며 가을별이 아까워 부지런 떨며 썰어 말린 감자 부각에 고구마에 주전부리거리도 우리 식구만 먹기엔 넘치게 많다. 잠깐의 수고로움만 보탤을 따름인데도 땅이, 자연이 내게 준 선물은 이렇게 푸지다.

향아리 속에 얼어 있는 꽃감 서너개를 꺼내다 놓고 잘근잘근 씹어 먹어가며 밤늦도록 최은숙의 《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있다고 말해주자》(문학동네)를 읽었다. 《녹색평론》에서 이 분의 글을 읽고 입이 헤벌어지게 기본이 좋았던 기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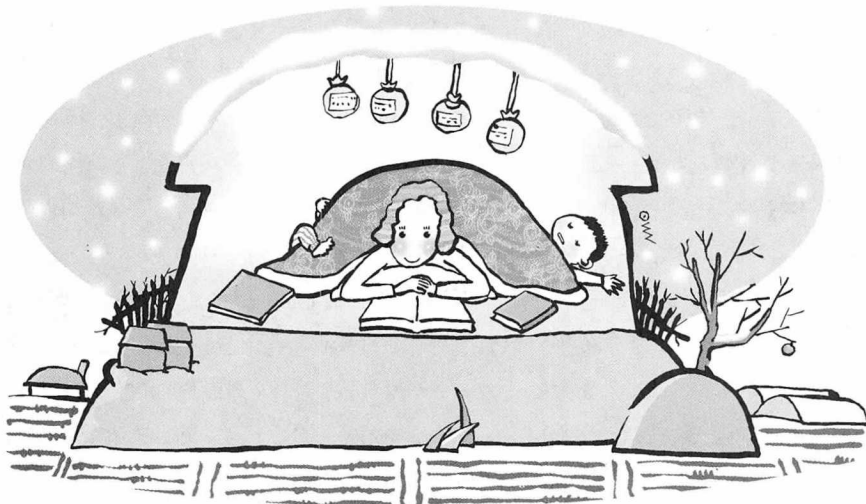
있는지라 첫 장을 열면서부터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둔 듯 마음이 바빠지고 설레기까지 했다. 아름다운 글은 아름다운 삶에서 나온다는 걸 또 깨닫는다.

농사를 짓겠다고 시골로 들어온 뒤로 내 책읽기는 우물안 개구리 격이다. 사실 씨뿌리고 김매고 하는 농번기 때야 《고추 수지맞는 기술과 유통전략》(농민신문사) 류의 전자제품 사용설명서 같은 농사 기술서 읽기도 바쁘다.

그러니 게을러도 부끄럽지 않은 겨울에야 겨우 숨들리고 미뤄뒀던

책읽기라도 하게 된다. 도서관 드나들며 해묵은 소설들도 읽어보고 화제를 모았다는 책들도 들춰보고 해봐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꼭 요새 유행하는 댄스곡 듣고 앉았는 느낌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농사로 뼈가 굵은 진짜 농부들의 이야기나 농사짓는 목사, 스님, 신부, 철학자들의 책은 '느낌'이 다르다. 빠르고 강하고 오래다. 꾸미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뭘 거창하게 주장하지 않는데도 세상사는 이치도 사람살이의 아름다움도 다 그 안에 들어 있어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열린다.

최은숙 선생님은 농부도 아니고 농부의 아낙도 아니다. 그는 충남 아산의 목천중학교 국어교사다. 그러나 농촌에서 나고 자라 땅, 자연에 대한 친화력이 있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는 그의 정서는 농부와 다르지 않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도 농부 아닌가.

스스로는 '날라리' 교사라고 말하지만 난 나의 학생시절 어느 한때라도 그만큼 교사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다. 그리고 이제 곧 학교에 입학하는 내 아이가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래보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찬란한 봄을 빼앗고 싶지 않아 들로 나가 아이들과 쑥을 뜯고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최(엄)정화가 돼 망가져줄 수 있는 그의 모습이 참 좋다. 그러나 나는 그가 개장국이 설설 끓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마을사람들과 막걸리도 마시고 장구 메고 놀 수 있는 선생님이라 더 좋다. 좋은 이웃일 수 없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일 수 있을까.

"납음도 무너짐도 순환의 질서 속에서 아름답다. 나도 그러하기를, 질기고 질기게 집착하여 그러주는 것이 없기를"이라며 순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그의 글을 빛나게 한다.

책에 취해 새벽녘에 늦잠이 드는 바람에 아침이 바빴다.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나니 다시 이불 위에 모로 누워 고물고물 자다 깨며 다 못 읽은 책이나 마저 읽었으면 싶었는데 작은아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졸라댄다. 입춘 지나자 한결 달라진 바람이며 별살을 어린것이 먼저 알아차린 모양이다. 아이 성화에 못이기고 마실을 간다. 얼려뒀던 떡 두어덩이 채반을 놓고 썬 보자기에 썬다. 집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고샅길엔 눈이 녹아내려 질퍽거리는데 털장화를 신은 아이는 좋아라 찰박거리며 잘도 걷는다.

찬영이 할아버지가 꿩이를 들고 비닐하우스 바닥을 고르고 계시길래 고개를 들이밀고 인사를 드렸더니 "고추씨 부었냐"며 말을 건네신다. 겨우내 조용하던 마을에 수련수련 생기가 돈다 싶었는데 집집마다 고추씨 붓느라 그런가보다. 이제 농사가 시작된 거다.

내가 하우스에 머무르는 사이 아이는 어느새 혼자 타박거리고 걸어가 한길에 내놓은 의제 아저씨네 소 옆을 맴맴거리고 있다. 아이의 동동거리는 발자국소리가 싫지 않은지 소는 다리를 모으고 바닥에 척하니 누워 순한 눈만 꿈벅거리다. 소 주변에 여기저기 널린 소똥을 보니 김용택이 《인생》(이레)에서 요새는 그런 소똥 없다며 옛날 소똥이야기한 게 문득 생각난다. 옛날 소는 순 풀만 먹고 곡기라고는 방아 찧을 때 나오는 쌀겨나 보릿겨만 먹어 똥이 냄새도 나지 않고 밟거나 만져도 더럽다는 생각이 안들었다고. 소똥 거름 속에 똥은 감도 넣어 삭혀 먹었다나. 지금이야 사료로 짐승들을 키우니 똥이 냄새도 지독하고 거름도 안된단다. 제대로 안먹으면 똥도 쓸모가 없다. 먹고 싸는 일이 정말로 돌이 아니다.

떡 보파리는 마을의 제일 상할머니인 왕채씨 할머니택에서 풀었다. 마실꾼들이 많다. 명절날 왔다 간 손주들 재롱 자랑, 빗독촉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소식이 없다는 마을 총각 걱정, 마을회관 짓는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팔순을 넘긴 연세에도 일철에는 아침저녁으로 고개 너머 서당골 밭을 오르내리시는 왕채씨 할머니가 나는 좋다. 말수는 적지만 정이 깊고 성정이 깨끗하셔서 말씀도 행동도 경우에 어긋남이 없다. 농부의 아낙

으로 늙어간다면 나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싶다. 겨우내 흙을 만지지 않은 덕분일까, 할머니 커다란 손등이 매끈하다 싶은데 왼쪽 손톱 두 개가 다홍빛이다. 누가 그렇게 예쁘게 해줬냐니까 손녀딸이 놓고 간 건데 열어보니 붓이 있어 발라보았단다. "그게 매니크여 매니크." 왕주 할머니 그 말씀에 온 방안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이다.

할머니들 품을 옮겨 다니며 놀다 잠든 아이를 등에 업고 탈래 탈래 걸어 집으로 온다. 저녁쌀을 씻어 안치고 마을 입구에나 서는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초스피드로 달려 올 큰 아이를 기다린다.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단순하고 소박하고."

굶지 않고 헐벗지 않았으니 된 거 아니냐던 남편은 올 겨울 서울로 돈 벌러 가더니 오늘도 안 올 모양이다.

"태우야 우리 서울로 다시 갈까?"

"그럼 이 집은 어찌고, 강아지랑 닭이랑 토끼는, 산도 나무도 밭도 다 못 가져가잖아."

아이 말에 눈물이 핑 돈다. 한 데 나 있는 목욕탕이 춥다고 덜덜 떨면서, 밤이면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면서도 아이는 제 손때 묻은 문고리며 지금보다 더 어릴 적 써놓은 낙서가 그냥 그대로인 이 집이 좋은 거다. 어디쯤 큰 돌맹이가 박혀 있고 어디는 구멍이 있는지 안 봐도 웬 한 고샅길이 지겹지 않았던 거다. 외딴집에서 군불 때며 어둠을 맞았던 최은숙 선생이나 강가에서 소 먹이고 투망질해 고기 잡으며 자란 김용택 선생 모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곳의 생활이 우리가 아이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다.

남편처럼 아이처럼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산도 나무도 밭도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다 가지면서. 그러나 사는 일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인가. 밭 흙이 녹고 씨뿌릴 때가 돼도 남편이 못 돌아오면 올해 농사는 쉬는 거다. 어찌면 더 가난해진 마음으로 도시로 가는 이삿짐을 싸야 할지도 모른다. 봉지봉지 체 이름표를 달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 온갖 씨앗들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말한다.

"그게 인생이지 뭐."

남편이 없으니 밤은 더 길다. 오늘밤에는 재미와 장난이 만든 생태 도시 이야기라는 《꿈의 도시 꾸리찌바》(이후)에나 다녀와야겠다.●